

※ 본 자료는 에어리퀴드코리아, 롯데케미칼, **SK**가스 공동 보도자료입니다.

에어리퀴드코리아-롯데케미칼-SK가스, 수소사업 합작법인 설립

- 21년 5월 롯데케미칼-SK가스, 롯데케미칼-에어리퀴드코리아, 수소사업협력 MOU체결 이후 각 사의 역량 결집을 통한 사업의 조기 안착을 위해 3사 합작사 설립
- 울산에 연 50만MWh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는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수송용 수소 충전소 건설 등 사업 전개로 미래 사업 확장의 교두보 역할 기대
- 공정위 기업결합신고 및 승인을 거쳐 3분기내 설립 예정... 합작사의 성공을 위해 각 사의 보유 역량 적극 활용

에어리퀴드코리아와 롯데케미칼(주), SK가스(주)가 부생수소 기반 발전사업과 수송용 수소 사업 등을 위한 합작사를 설립한다.

2일(목) 오전 10시 잠실 롯데월드타워 76층에서 에어리퀴드코리아 니콜라 푸아리앙(Nicolas Foirien) 대표, 롯데케미칼 황진구 기초소재사업 대표, SK가스 윤병석 대표와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합작법인은 지난해 5월 롯데케미칼이 SK가스, 에어리퀴드코리아와 수소사업을 위한 각각의 MOU체결 이후, 수소 사업과 관련한 각 사의 역량 결집을 통해 사업의 조기 안착을 추구하고자 3사가 뜻을 모아 설립하게 되었다.

합작법인은 롯데케미칼(주)과 SK가스(주), 에어리퀴드 코리아가 45%:45%:10%의 지분을 출자해 설립할 예정이며, 롯데케미칼(주)과 SK가스(주)가 공동으로 경영한다. 합작법인명은 미정으로, 공정위의 기업결합신고 및 승인을 거쳐 올해 3분기 내 법인 설립 후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합작사는 롯데케미칼과 SK가스가 부생 수소를 확보할 수 있고, 수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울산에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을 첫 사업으로 시작한다.

합작사가 건설할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연 50만MWh의 전력 생산능력을 갖출 예정으로, 이는12만 가구(4인가구 기준)가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사용량에 해당한다. 이후 전국 주요 거점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나아가 블루/그린수소 에서의 협력기회도 검토할 계획이다.

합작사의 성공을 위해 각 사는 보유 역량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롯데케미칼은 국내 최대의 부생수소 생산자로서 원료 공급은 물론 울산공장 내에 관련 사업 부지를 제공하며, 그룹내 계열사를 통한 수요처 확보로 사업 초기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SK가스는 울산 내 있는 관계사를 통해 부생 수소를 확보해 공급하고, 기존에 보유한 발전사업 역량과 LPG 충전소 네트워크 및 운영 노하우를 활용해 합작법인의 장기적인 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에어리퀴드코리아는 산업용 가스분야의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으로, 수소충전소뿐만 아니라 수소 공급망 및 유통에 대한 전문지식과 관련 기술을 제공할 예정이다.

에어리퀴드코리아 니콜라 푸아리앙 대표는 “롯데케미칼 및 SK가스와 협력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합작 파트너십이 한국의 지속 가능한 수소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또한 지속 가능한 미래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는 에어리퀴드그룹의 기후 전략과도 일치한다”고 했다.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황진구 대표는 “수소산업 초기 생태계 형성을 위해 각 사의 핵심역량을 집중해 친환경 수소 시장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다가오는 수소경제 활성화에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롯데케미칼의 관련 노하우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SK가스 윤병석 대표는 “이번 합작 법인 설립이 대한민국 수소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마중물이 되어 향후 국내 수소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SK가스도 그 동안 준비해온 수소 사업과 관련한 역량을 동원해 대한민국이 수소 사회로 전환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참고자료>

■ 합작사 소개

사업 범위	• 부생수소 기반 발전사업, 수송용 수소 사업 및 기타 수소 관련 사업
지분 구조	• 롯데케미칼(45%) : SK가스(45%) : Air Liquide Korea (10%)
사업 부지	• 울산
상업운전 목표	•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2024년 하반기

수소 에너지에 대한 에어리퀴드의 약속

에어리퀴드의 약속은 2015년 파리 협약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기후 변화 및 에너지 전환의 시급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소 분야의 선구자로서, 그룹은 수소가 에너지 전환의 초석임을 확신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그룹은 생산 및 저장에서 유통에 이르는 전체 공급망 전반을 제어하기 위한 에어리퀴드만의 고유한 전문성을 개발해 왔으며, 산업적 용도, 청정 모빌리티와 같은 광범위한 응용 분야에 청정 에너지 운반체로서 수소를 널리 사용하는데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에어리퀴드는 2035년까지 저탄소 수소 전체 밸류체인 및 2030년까지 총 3GW의 전기분해 용량에 약 80억 유로를 투자하여 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에어리퀴드

에어리퀴드는 1996년에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4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산업 부문(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자동차 제조 등)에 필요한 산업용 가스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흥 헬스케어 사업등을 통해서도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100개소 설치를 목표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하이넷(HyNet) 및 수소 상용차 보급을 가속화하고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을 위해 2021년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코하이젠(KOHYGEN)에 참여한 것에서 보여주듯이 한국 수소경제 발전의 초석을 다진 핵심 기여자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보도자료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에어리퀴드코리아 커뮤니케이션팀
박연희 수석 02-3019-2527 / 010-8307-3696

롯데케미칼 커뮤니케이션팀
정승한 파트장 02-829-4267 / 010-9922-0596
김원범 책임 02-829-4262 / 010-9887-7585
성지운 대리 02-829-4265 / 010-4062-4715

산업용 및 의료용 가스, 기술, 서비스 분야의 세계 선도기업인 에어리퀴드는 75개국에서 약 66,400명의 직원들이 380만 명 이상의 고객과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소, 질소, 수소는 생명, 물질과 에너지에 필수적인 작은 분자들입니다. 이것들은 에어리퀴드의 과학적 영역을 상징하며 1902년 회사 창립 이래로 에어리퀴드 활동의 중심에 있어 왔습니다.

에어리퀴드는 업계를 선도하고, 장기적인 성과를 창출하며, 지속가능성에 이바지하고자 열망합니다. 회사의 고객중심 변혁 전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성 있고 정기적이며 책임있는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이 바탕에는 탁월한 경영, 선별적 투자, 개방형 혁신과 전 세계 그룹사가 실천하는 네트워크 조직이 자리합니다. 임직원의 헌신과 창의력을 통해 에어리퀴드는 에너지 및 환경 변환을 활용하고, 헬스케어와 디지털화의 변화를 이끌며, 이해관계자들에게 더 큰 가치를 창출합니다.

에어리퀴드는 2021년 230억 유로가 넘는 매출을 거뒀으며, 매출의 40% 이상은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는 솔루션이 차지했습니다. 에어리퀴드는 유로넥스트 파리 증권거래소 (compartment A)에 상장되어 있으며 CAC 40, CAC 40 ESG, EURO STOXX 50 및 FTSE4Good 지수에 속해있습니다.